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2)]제1코스-①서귀포휴양림~남성대 제1대피소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 풍부한 고품격 숲길

입력 : 2009. 04.02. 00:00:00



▲시오름 북사면에 이르면 울창한 편백숲이 숲길 좌우에 넓게 분포한다. 숲길은 폭 2m 내외 규모로 연결돼 있다. 이곳의 편백숲은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편백숲 가운데 가장 우량한 숲이란 평가다. 사진은 시오름 일대 국유림과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시험림 일대의 편백숲. /사진=강경민기자

서귀포자연휴양림 '환상숲길' 거점... 법정사·제주시시험림 연결
영실~서귀포시 하원 도수로 뚜렷... 향수어린 '추억의 등반로'
옛길은 세월의 흔적... 시오름 북쪽 일대 4·3주둔소 확인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가 3월 22일(일) 1100도로변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첫 장도에 올랐다. 한라산에는 밤새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숲길탐사를 정상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대원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첫 탐사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출발해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시험림을 거쳐 돈내코 등반로 남성대 제1대피소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환상숲길 탐사의 제1코스다. 이 길을 첫탐사 코스로 결정한 것은 제주산악연맹 숲길조사팀의 예비탐사 결과, 생태와 경관,

역사문화자원이 이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예고한 대로 숲길 첫 탐사코스의 거점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탐사대가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주목하는 것은 '환상숲길'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산림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겸비한 복합휴양관, 다양한 산책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앞으로 '환상숲길'이 개척되면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탐사대는 우레탄으로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 1.5km 이동한 뒤 하천으로 진입했다. 계곡은 간밤의 폭우로 작은 폭포를 이뤘다. 이 하천은 영실 일대에서 발원해 하원, 도순을 지나 강정으로 이어지는 도순천이다.

도순천은 '물의 도시' 서귀포시를 웅변해주는 하천이다. 발원지인 영실분화구의 용출수는 지금도 등반객들의 목을 적셔주는 생명수다. 영실물은 하원 마을까지 도수로로 연결된다. '환상숲길'에서 이 도수로를 만날 수 있다. 영실계곡 가까이에서 시작된 이 도수로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만 해도 이 물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도수로는 과거 한라산 등반객들의 길라잡이 노릇도 톡톡히 해냈다. 지금의 1100도로와 영실 진입로가 없었던 시절, 도수로는 영실에서 하산을 할 때 헤매기 쉬운 수림지대에서 더없이 고마운 길잡이였다. 제주산악연맹 임시영 상임부회장은 "도수로길은 추억의 등반로"라고 했다.



▲서귀포휴양림에서 법정사 산책길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도수로. 도수로는 영실에서 이어진다.

도순천 징검다리 돌계단을 가로질러 하천을 건너면 오르막 법정사 전망대로 이어진다. '환상숲길'을 잇는 목재 데크 산책로를 따라 만나게 되는 법정사 전망대에 서면 서귀포 앞바다 범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귀포 자연휴양림과 법정사를 연결하는 323m 길이의 이 산책로도 2007년 12월 준공돼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산책로는 법정사와 의열사(義烈祠)를 연결한다.

'환상숲길' 탐사대는 의열사를 지나 도수로 길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다가 동쪽 숲길로 방향을 틀었다. 숲길의 흔적은 어렵듯이 있지만 신록이 우거지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옛길을 찾기 위해 제주산악연맹 숲길조사팀은 최근에도 며칠째 숲속을 뒤지고 다녔다. 숲길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한참 떨어진 해발 700m 일대를 동서를 연결한다.

옛길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보일듯말듯 미로였다가 숲으로 뒤덮였다. 겨우 한사람이 다닐 만한 좁은 숲속 길이 이어지다가도 임도를 만난다. 임도가 있는 곳에는 표고를 재배했던 흔적이 뚜렷하다. 일제가 임산자원 수송로와 병참로로 구축했던 '하치마키'도로의 현장도 생생하다. 숲길은 크고작은 하천을 만나면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다.

시오름 서북쪽 50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4·3주둔소가 확인됐다. 이곳은 4·3시기 토벌작전 전개와 주둔소 구축 과정을 엿볼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시오름 북사면에 이르면 울창한 편백숲이 숲길 좌우에 넓게 분포한다. 숲길은 폭 2m 내외 규모로 연결돼 있다. 이곳의 편백숲은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편백숲 가운데 가장 우량한 숲이란 평가다. 편백숲 뿐만이 아니다. 수령이 70년 이상된 삼나무숲이 하늘을 찌른다. 편백숲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의 제주시시험림까지 연속해 벨트를 이루고 있다.

숲길탐사는 제주시시험림 경내에 들어서 효돈천을 낀 남성대 등반코스 제1대피소에 이르렀다. 이날 제1코스 탐사는 12.5km에 달했다. 이 코스는 제주시시험림을 통과해 미악산, 산록도로로 연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대

▷탐사대장 오윤호(제주산악연맹 부회장) ▷숲길조사팀장 현정필(제주산악연맹 이사) ▷학술조사팀=강만익(인문지리·세화고)·강영제(식물·난대산림연구소)·김완병(동물·민속자연사박물관)·박찬식(역사·4·3연구소장)·현원학(지질·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특별취재팀=강시영 팀장·문미숙·강경민·최태경 기자

[전문가 리포트]한라산 남사면 삼나무와 편백 숲

시오름 일대 편백.삼나무숲 가장 우량...산림욕.치유효과 등 가치 자원화 필요



제주도에 삼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한 년도는 1924년 제주시 월평리에 조림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나, 현재 그 당시 심어진 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초 심어진 삼나무의 종자 출처는 일본 나가노(長野)산 종자로 제주도 묘포에서 양묘되어 봉개, 해안 등지에 심어졌고, 서귀포 동흥, 상호, 위미 등에 심어졌다.

그 후 종자 산지가 우리나라 남부지방 및 제주도와 환경요인이 비슷한 아끼다(秋田)에서 종자가 도입되어 식재되었다. 삼나무와 편백은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정계획'이란 명칭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남부, 중부, 북부 및 지역간 차이를 두고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한데서 비롯된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삼나무 숲 가운데 가장 나이가 오래된 숲은 서귀포시 한남리의 삼나무 숲이다. 이 숲은 1933년 서귀포양묘장에서 아끼다산 삼나무 종자를 양묘하여 7.3ha를 조성한 숲으로 현재까지 훌륭하게 남아 있어 제주도 인공림의 백미로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있는 삼나무 약 4만ha, 편백 7000ha가 조림되어 있으며, 이 면적은 제주도 산림면적의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

서귀포시 동흥동 '난대산림연구소' 시험림에 분포하는 삼나무 숲과 편백 숲 역시 1930년대 후반에서 해방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하여 조성된 인공림이다. 특히 난대산림연구소와 서귀포시 시오름 사이에 분포하는 편백 숲은 수령이 70여년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편백 숲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편백 숲은 목재적 가치도 가치려니와 숲 자체가 지닌 심신 수양 기능과 산림욕을 통한 긴장완화 및 질병의 치유효과로 인하여 가치가 치솟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장소로 경남 남해, 전남 장성의 편백 숲이 유명하여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편백 숲과 삼나무 숲은 숲에서 발산하는 물질 중의 하나인 테르펜이 다른 나무로 이루어진 숲보다 훨씬 많아 산림욕으로 인한 심신 안정과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런 숲에서 생산되는 잎, 열매, 목재 조각, 정유 등 숲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아토피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삼나무, 편백 숲을 이용하여 제주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의 숲길을 조성하여 전 국민의 숲길을 거닐면서 자연 풍광과 숲이 제공하는 치료효과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영제.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